

‘상도’의 화신 임상옥

박천홍/집필가



▲ 거상 임상옥

지난 해 가을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앞당긴 사극 한 편이 있었다. 최인호의 소설을 극화한 <상도>가 그것이었다. 탁월한 이야기꾼의 원작에 드라마적 상상력이 버무려졌으니 장안의 화제가 될 만했다. 더구나 작은 이(利)에 일희일비하는 ‘상술’(商術)이 관치는 세대의(義)를 금과옥조로 삼은 ‘상도’(商道)의 이념형을 제

시했으니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에 붙들어두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다.

작가 최인호가 ‘상업에 도를 이룬 성인’이라고 극찬했던 임상옥(林尙沃, 1779~1855)은 200여년 전에 실재했던 인물이다. 그는 조선후기 국제무역계를 쥐락펴락했던 거상(巨商)이었다.

하지만 당시 천재적 무역인으로 성가가 높던 그에 대해 정사(正史)는 입을 다문다. 상행위를 ‘말업’(末業)이라고 천시했던 조선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그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다. 그의 행적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나 문인평의 <명인전> 등을 통해 조각그림 맞추듯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임상옥은 정조 3년(1779) 12월 10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18세 때부터 부친을 따라 북경을 들락거리며 상리를 배우고 재산을 모았다. 그는 한때 광산군수, 구성부사 같은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벼슬에 큰 뜻을 두지는 않았다. 상인으로서 임상옥의 천품은 국제무역에서 빛을 발한다. 그가 활약하던 때는 인삼무역의 황금기였다. 쇄국주의를 고수하던 조선왕조는 국경관문에 한해서 제한적이거나 무역시장을 열어 두었다. 특히 의주는 대청(對淸) 무역의 통로로서 교역규모가 가장 컸다. 당시 대청무역의 주력상품은 인삼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임상옥이 국제무역의 패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시류를 읽을 줄 아는 뛰어난 안목 때문이었다. 그는 북경을 자기 집 문전 드나들 듯 출입해 국제무역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다.

순조 10년(1880)에는 정부로부터 인삼무역 독점권을 따내는 데 성공한다. 정치권력을 동원하는 데도 기민했다. 순조 때 세도가였던 재상 박경종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자신의 후원세력으로 끌어들이 줄도 알았던 것이다. 임상옥은 냉혹한 승부사 기질로도 명성을 쌓았다. 그가 인삼을 팔러 북경에

갔을 때였다. 그의 인삼독점을 시기하던 북경 상인들이 인삼 불매 동맹을 맺어 거래를 끊어버렸다. 귀국할 무렵 그는 일대 승부수를 띄운다. 가지고 갔던 인삼 꾸러미를 마당에 쌓아 놓고 불을 질러버렸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청국상인들은 부랴부랴 달려와 인삼을 팔라고 애걸복걸했다. 청상들은 10배나 치솟은 인삼값을 치르고 사갔다. 그들의 계약에 멋지게 복수한 것이다.

임상옥을 상도의 화신으로 격상시킨 것은 명민한 이재수완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인의 혼을 담고도 남을 만큼 그의 인격은 험량한 상인의 범주를 넘어섰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는 항상 겸손하고 신의를 지킬 줄 알았다. 자기관리에 도 엄격했다. 근검을 몸소 실천했고 정돈제일주의를 지향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보기 드문 자선가이기도 했다. 의주에 수해가 일어났을 때 사재를 털어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다.

임옥상이 구현한 ‘상도’는 그의 시 한편으로 요약된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 그는 부가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물이라는 철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의 아름다운 퇴장도 기억할 만하다.

그는 말년에 시골 촌부로 돌아가 책을 읽고 시를 지으며 한류의 세월을 보냈다. 그가 오늘의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혼과 인격의 조화’ 바로 그것이다.



▲ 조선후기 무역상들

• 필자 소개 •

필자 박천홍씨는 고려대학교원에서 사학을 전공했으며, 서평전문지 <출판저널> 편집장을 역임한 후 현재 역사 관련 책을 집필 중이다.